

대학, 사회, 기초학문

이 증 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1. 대학은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

어느 시대에나 대학의 유용성은 문제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많은 면에서 현대 대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독일에서도 대학교수의 완고성, 고루성은 진취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고, 대학의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늘이 아니라 근대 이래의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대학 망국론이 제기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참혹한 사회상에서 소와 땅을 팔아 대학 등록금을 대는 농촌출신 대학생들의 경우에서 한국의 상아탑은 '우골탑'이라는 유행어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운위하면서 이른바 한

국 제일이라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대학순위에서 기억도 잘 안 나는 몇 백 등에 속한다는 것이 한국 대학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예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서울대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제일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런 평가와 등수매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하는 사람은 사실 서울대가 세계 몇 백 등에 속한다는 사례에 그리 충격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대학평가라는 또 하나의 올림픽에서 한국 대학이 얼마나 참담한 성과를 거두었느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참담한 대학을 나온 세대들이 그간 무엇을 이룩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90년대의 한국 대학이 아무리 세계적 수준에서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50년대의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80년대 초반까지 외국학위만 있으면 대학교수 자리가 거의 무조건 보장되던 현실에서 이제 박사실업자가 줄 서있는 세대만을 보아도 시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그리고 '60년대의 어떤 기준에서 보아도 도저히 대학답지 않은 대학을 나온 세대들이 '60년대가 시작된 이래 30여 년에 걸치는 개발시대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 개발시대에 한국 사회가 이룬 성과의 요인으로는 반드시 한국인의 유별난 교육열이 꼽히고 있다. '50, '60년대에 식자들이 개탄해 마지않던 시답잖은 대학교육이 젊은이를 병들게 하고 농촌을 피폐시킨다는 주장은 당시에는 타당한 지적이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의 과잉교육, 과도한 대학생 수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과 대학교육의 효용성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50년대의 우골탑 대학과 한국의 경제발전 관계를 고찰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2. 대학에서의 실용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90년대 들어 특히 김영삼 정부가 '국제화', '세계화',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대학이 거센 비판과 개탄 속에서 중요한 개혁 대상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여러 모로 운위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소위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국 상황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가에 최근 고시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나, 대학 졸업생의 절대 다수는 기업으로 진출하게 된다. 행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과 공·사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대학 졸업생의 자질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서도 상이한 부문에서 상이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요즘 모든 직장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의 구사 능력과 사무자동화, 즉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대학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이는 수영을 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다만 외국어 구사 능력은 이것이 단순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다른 사회와 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능 이상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나 대조직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은 이런 포괄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공·사조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란 대학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한다. 외국의 국제 비즈니스맨을 양성하는 학교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무능력 이외에 사교에 필요한 테니스, 골프, 댄스를 역시 가르친다고 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대학이 이런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물론 대학의 부설 기관이나 강좌에서는 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의 본령은 아니며 이러한

기능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요구한다면 이는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서구의 대학들이 거의 다 훌륭한 체육·예능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체육 학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학교가 언어실습실(language lab.)을 갖추고 있지만, 교양영어 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의 실용적 능력의 제고란 자칫 잘못하면 지엽을 근본과 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실용주의의 예로서 현재 한국의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는 고시 열풍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고시 열풍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두말할 여지 없이 작금의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였다고 여겨진다.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영역의 민간사회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관련 지향형의 가치체계가 이러한 현상을 수그러들지 않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학과 대학 생활에서 무언가 쓸모있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무언가 유용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이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물론 과거의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목도하는 것과 같이 할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낭만, 룸펜적 생활보다는 목표를 정하여 외국어, 컴퓨터 그리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바가 못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장려할 사안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실용주의가 배출한 인간상을 볼 때에 이

러한 현상에 대한 자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의 자격시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법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위장약과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세상과 등지고 고시촌에서 몇 년을 지낸 젊은이가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자. 평균적으로 그 후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민의식과 출세주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다. 결혼도 그들에게는 흔히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단지 악착같은 목적의식만 지녔고, 사회의식이 취약하거나 사회경험이 일천한 법관들이 복잡다기한 사회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직접적으로 시험과 상관없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과 사회 나아가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사람이 전문 지식이나 소양을 갖추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와 인간을 위해 진실로 유용하리라고 여겨진다. 천박한 전문주의는 몹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서울대학교 지상주의'이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에 여러 개 있는 국립대학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상이다. 국가와 사회를 서울대 출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듯한 현상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육사와 서울법대라는 속설이 있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아래에서 지배 엘리트의 층원지로서 육사가 아무래도 빠지고 나니, 서울대 출신의 한국 사회에서의 지위가 더욱 돋보인다고 하겠다.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자세는 아마도 행시나 사시를 준비하는 자세와 차이가 거의 없으리라

고 여겨진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아주 실용적으로 고등학교나 입시준비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다. 서울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란 균형잡힌 교양이 부재하고 편집적인 목적의식으로 차 있다는 점에서 야만인(barbarian)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광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간들이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를 위시한 소수 명문대학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런 유형의 인간을 제도적으로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물론 서울대가 아닌 대학에 균형잡힌 교양인이 더욱 많이 입학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대학이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더욱 가난해지고 한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모든 사회에서 마음의 양식을 길러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정신의 양식은 정신의 자유가 넘치는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정신이란 대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설픈 실용주의로 대학의 자유정신을 죽이는 일이야말로 철학의 빈곤이 낳은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대학이 세계 속에서 홀로 서는 길은?

한국의 대학은 아니 이 시대의 모든 대학은 세부 전공의 차이를 넘어서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자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오늘의 대학이 2백 년 전의 근대 대학보다 정신적으로 결코 풍요하다고 할 수 없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느 면에서 그것은 응용과 실용의 과다와 기초학문의 빈곤에 의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초학문은 응용과 실용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기술·경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끼기'를 넘어서 독자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은 어디이겠는가. 그것은 기초과학의 수용과 이해가 철저한 속에서만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단순모방에서는 기초과학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창과 독자성은 기본을 철저히 다지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기술입국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서 한국의 대학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단시간에 실용적인 성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초과학에 투자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분야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대학,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식인 세계 일반이 경쟁적으로 선진국의 학문 성과를 수입하는 데만 급급하여 왔다. 소위 선진이론을 가장 빨리 수입하는 사람이 가장 '날리는' 학자요, 이론가로 행세하는 세태마저 있어 왔다. 선진국의 이론뿐 아니라 후진국의 이론이라도 그것이 의미있는 것이라면, 신속히 도입하여 연구하는 자세는 하나도 탓할 것이 없다. 문제는 한국의 대학이 한국의 지성계에 그리고 세계의 학문세계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이론의 수입국이 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무역적자를 심각히 여기지만 지식, 이론, 문화 영역에서 한국이

일방적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심각히 여기는 소리는 그리 높지 않다.

한 해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유학계정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의 대학 시설을 이용하여 우리 학생을 교육하는 것만을 대견히 여기고, 유학 당사자도 세계의 명문대에서 수학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조다. 그러나 언제까지 한국 대학은 외국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학교 정도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외국 유학의 홍수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문화적 선진국이요, '세계중심국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상이 비록 과도기라 하더라도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한국의 대학이 세계의 대학에 마주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이 세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길은 기초과학의 충실한 이해와 아울러 스스로 기초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한국의 많은 대학은 교수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에도 외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실린 것보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웃지 못할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자기 비하를 벗어나는 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어 독자적인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는 비단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문화와 전통의 독자성 때문에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기초과학이 있어야 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서 남의 것 '베끼기'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독자성과 독창성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를 '베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제도, 교육제도, 사회제도를 베끼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어설프게 베꼈을 때 어떤 후유증과 부작용이 발생하는가를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유학이 줄 수 있는 효용과 이득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기초과학의 발전이 한국의 대학이 '세계화'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후진국이라는 과거 역사의 오명을 씻고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일본이 구미가 지배해 온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사의 주역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과, 일본의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일찍이 도달하였다는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이종오/서울대학교 상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말부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회장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냈다. 주요 논문으로 "탈냉전시대의 대학과 대학문화", "한국노동운동의 이념", "학문, 국가권력 그리고 근대성" 외 다수를 발표했다.